

1933년2월23일 4면 7단

哲學과 文學

생각나는 대로의 斷片(1)

申南徹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쉴레-스파스칼』의 이 말은 씨브면 씨블수록 맛이 난다. 생각함이 있는 까닭으로 사람은 自己의 世界觀을 가지고 現實에 對한 一定한 態度를 決定하며 그 態度가 決定되는 곳에 一種의 理論이 生한다. 그러나 생각 그것은 世界觀이 아니다. 생각은 因것 感性知覺의 結果 生하는 단지 心的 作用에 止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超越하여 自身의 世界를 가진다. 이 自身의 世界는 □□한 □□를 가진다. 感性知覺의 □□性□□에 依하여 所謂精神의 世界로서의 思惟(생각)의 世界이다. 그러나 이 精神의 世界 又是 思惟의 世界라는 것이 얼마나 허전허전한 것인가는 普通의 사람에게는 이내 알 수 있는 것이겠나?

이 精神의 世界를 『파스칼』 가티 貧弱한 人間의 神的 感情의 居所로써 規定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人間의 理解에서 보아 한 개의 背理를 內包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人間은 無와 萬有와의 中間 物이다』

無를 絶對에 돌리고 萬有를 感情의 흐름이라고 볼진대 精神은 認識의 目的이다. 思惟의 表現이다. 勿論 感情의 흐름 더욱 信仰의 感情을 否認하지는 못하겠으나 그것은 精神의 世界의 그릇된 表現이다. 信仰의 感情은 確證의 理論에 依하여 □□되어야 한다. 파스칼은 □□的 確信을 가지고 잇섯다. 그러나 神의 世界를 □□入하여 그것으로써 精神을 『愛』로써 배불리엇다. 생각하는 弱한 動物인 사람은 생각하는 作用 그것까지도 神에게 바쳤다. 神은 證明할 수는 업스나 그것을 信仰하는 것은 確實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갈대가 信仰을 가졌다. 『생각에서 信仰에-』 이것은 中世□의 思想의 一般의 特徵이엇다. 神의 愛-□□에서 自然의 認識으로-이것은 中世記에서 近代史 上 □□의 時代에의 過渡期의 외쳐보지 못한 슬로간이엇다. 教會의 勸力에서 『휴매니즘』으로-그리하여 人間理性의 自覺으로 人類의 思想的 發展은 흘러나려왔다. 생각은 重要한 것이엇다. 이러한 過渡期에 出生하얏든 파스칼의 이른바 생각도 그러한 一般의 特徵의 □□에서 버셔나는 것이 아니엇다. 그리하

야 그 생각은 다시 信仰으로 □□하고 마렸다.

지금 말한 哲學的 思想의 發展에 □□해야 文學的 作品의 一般的 特徵도 차저 볼 수 있는 것이니 中世的 騎士의 □□ 또는 序事詩에 잇서서의 神的 理念의 □□사랑의 永遠한 信仰的 絶對化 感性에서 차저내려고 애쓴 甘美한 幻想的 인 꿈 地上界의 □□에서 天上的 □□으로 가려는 不斷한 □□ 등을 볼 수가 있다. 基督敎的 人生의 理想은 원갓 □□의인 生活을 □□하얏다. 그러나 그러한 □□우에 새로운 ㅅㅅ이 트지 안으면 아니 되는 것이니 □□□□時代에 이 러난 휴머니즘과 이것에 □□한 □□主義의 唯物論的 世界觀은 □□□□의 世界를 가지게 되얏다. 中世의 『니벨룽겐』이 基督敎的 □□에 잇서서의 騎士의 永遠□□의 □□과 感情的 不安을 단테의 『神曲』이 觀念的 幻想에서 天上界의 理想을 그린 것이라든지 哲學的 思想의 發展과 서로 □□□□를 가진 것이 아닐 것인가? 생각은 世界의 □□를 認識하라고 한다. 더욱 認識이 情的 要素로 □□되야 다시 □□으로 統一될 ㅅㅅ 所謂 文學的이 된다. 생각은 홀노 그 認識한 것을 自己의 世界안에 가두어 버리지 안는다. 그것을 表現하라고한다 그 表現이 中世紀的으로 神秘의 ㅅㅅ을 입고나왔을ㅅㅅ 그것은 神의 □□안에 안기여 버리는 것이다. 中世의 支配的 空氣이엇는 神學的인 表現과 그 □□는 생각의 自由로운 노래를 막어버렸다.

그러한 □□의 속에서 □□□□의 『후마니무스』의 理想은 세워졌다. 생각-思惟의 自然主義的 表現이 唯物的 自然科學的으로 外面化하야진 ㅅㅅ □□□의 □□思想은 □□되얏다. 그리하야 個人의 人間으로서의 巨大한 힘이 前面으로 나아왔다. 칸트의 理性批判은 이것을 哲學的으로 基礎지어준 것이겟다. 볼테-르가 『원갓 □□을 □□하라!』고 외친 것은 個人의 생각(思惟)의 自由로운 表現을 拒否한 敎會-基督敎的 勸力에 對한 反逆이엇든 것이다.